

고흥 복숭아 '고급화 마케팅' 효과 톡톡

고흥군, 마늘 이어 복숭아 코로나19 농가돕기 앞장 롯데마트·슈퍼에 10톤 납품 합의...농가 걱정 덜어

고흥 복숭아가 5~10% 상승된 가격에도 불타나게 팔려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서 고흥군 농산물 브랜드 가치 고급화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 고흥 복숭아 10톤을 납품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가 농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져 판로확보와 가격하락에 어려움을 겪는 복숭아 농가들을 돕기 위해 군이 직접 나섰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군은 롯데

마트·슈퍼에 고흥 복숭아를 출하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고 10톤 가량을 공급하기로 합의를 해 농가들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고흥군과 롯데 측은 지난해 10월 고흥 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00억원의 농수산물 구매약정을 체결하였다. 지난 5월에는 고흥마늘 출하시기에 맞춰 코로나19 농가 돕기 고흥마늘 판촉전을 진행해 주대마늘의 평균 단가를 단당 1,000원

이상 높은 가격에 10만단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롯데마트의 이장현 MD는 "고흥 복숭아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얻을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마늘에 이어 복숭아까지 농산물 대형 소비자 확보에 주력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우리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를 향상시키는 마케팅을 확대하고 다른 작목 또한 판로확보에 주력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 롯데마트 서을

역점(점장 박장열)에서 고흥 복숭아 판촉행사를 갖고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된 복숭아는 7월 말까지 전국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한눈에 보는 순천살림’
책자 및 웹툰 제작·배부

순천시는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결산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눈에 보는 순천살림’ 책자 및 웹툰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한다.

‘한눈에 보는 순천살림’ 책자는 결산서의 복잡한 내용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게 그래프와 도표 그리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 요약 작성한 새로운 결산보고서로, 지난해 처음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했고,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책자뿐 아니라 웹툰으로도 제작하여 시민들이 더욱 쉽고 흥미롭게 순천시 재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순천시청 키카오톡플러스 친구 등 SNS를 통해 시민에게 홍보하고,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예산결산과정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배부했다.

또한 올해는 관내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하고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게재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 성산공원, 주민 생활문화 '명품공원' 재탄생

내년 친수 목교·어린이 물놀이장 조성...노후 시설물 교체



성산공원 리모델링공사 조감도

여수시 무선지구의 중추적인 근린공원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성산공원이 시민 각계각층의 휴식과 즐거움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시에 따르면 68억 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성산공원을 주민 생활문화 거점 명품공원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 목교와

수변산책로 등을 설치하고, 매년 각광받고 있는 장미축제 활성화를 위해 장미동산을 확대 조성한다.

최근 인기 만점인 어린이 물놀이 시설 설치와 어린이 놀이 기능을 보강하고, 농구장·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공연장 등 노후 시설물을 재정비한다.

여수시는 성산공원이 공원 이용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시설물 노후화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3회에 걸쳐 지역주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지난달 29일 착공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보성군, 윗나무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 민간공모 추진한다

보성군은 이번 달 28일까지 '2020년 보성 윗나무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20억 원(국고50%, 지방비 20%, 자부담30%)이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10억 원 이내에서 물류·단순 가공, 거점·복합가공 라인 등을 유통과 관련된 라인을 구축할 수 있고,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내에서 가공 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윗나무'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산림조합 등)로 생산자단체가 다수의 농산물, 임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윗나무' 취급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에서 물류·단순가공 분야는 법인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확보,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인 주주 5인 이상이거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농업인 지분 1/10 이상이어야 한다.

거점·복합가공은 법인운영 실적 3년 이상, 총출자금 3억 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운영이 연간 200일 이상 가동,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인 법인이어야 한다.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사업은 법인 운영 실적이 2년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확보,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 최근연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성군 윗나무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윗나무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윗나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윗나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민간공모사업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 기업 '추가 모집'

4년간 2,000만원씩 지원

여수시가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4년간 최대 1,500만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참여 기업을 모집해 해당

기업에서 근속하는 청년 83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여수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만18세~39세)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가칭)광양예술창고 개관 앞두고 명칭 공모

광양시는 올해 10월 (가칭) 광양예술창고 개관을 앞두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에 어울리는 명칭을 오는 20일까지 공모한다.

광양예술창고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사업 일환으로 전남도립미술관 인근 옛 양곡창고였던 공간을 전시장, 미디어아트실, 문화카페, 체험실, 야외 공연장 등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올해 10월 개관 예정이다.

공모한 명칭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8월 10일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